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남의 흠을 애써 찾아서
약점을 들추지 말고
언제나 스스로를 단속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3월 2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44호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민간 문화재 많은데 지원은 국가 소유만 형평성 맞는 지원을

조계종, 각 대선후보에 불교 · 문화 정책 제안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이 대선후보들에게 불교 · 문화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4월 10일 국회를 방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각 정당 원내대표실에 〈문화의 새 시대를 여는 불교 · 문화 정책 제안〉 제하의 자료집을 전달했다. 자료집은 △문화 · 자연유산 정책 개선 △화쟁과 치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실현 △불교계 현안 등 총 3개 장으로 구성됐다. 이 중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뤘다. 조계종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 분야서는 민간문화재와 국유문화재의 예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비율은 민간문화재가 국유문화재보다 많지만 정부 예산정책은 국유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브리핑을 맡은 김용구 기획차장은 "현재 문화재정 업무는 국가재산 성격인 궁궐 · 왕릉 · 유적관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 뒤 문화재 소유별 지원예산 형평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은 대표적 예산 편중사례로 2017년도 정부예산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국유 문화재 중 궁궐 · 왕릉 · 유적 114건에 배정된 총 예산은 1066억3100만원이다. 1건당 9억35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조계종 소유 건축 · 불상 · 탱화 · 사적 등 735건에 배정된 총 예산은 486억6000만원으로 1건당 약 6600만원 수준이다.

김 차장은 "궁궐, 왕릉 등은 면단위로 관리되지만 그 밖의 문화재는 점단위로 관리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민간문화재들은 무너지거나 훼손됐을 때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즉 국유문화재는 규모가 크고 보존을 위한 상시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지만 민간 소유는 각 소유권자가 관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조계종은 부처별로 산재된 문화재 관련 기능을 통합하고, 국가적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재 부처 등 조직개편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조계종 신년기자회견서도 자승 스님이 한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화재청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실태 조사' 등을 실시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조계종은 민간문화재를 전담하고 지원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산림청 · 문화재청 등 유사업무 및 중복기능을 통합할 것을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외에도 국가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의 진흥원을 설립해 운영할 것과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문화재 도난 및 멸실 예방을 위한 시효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간문화재 지원 강화
중복규제법령 폐지 등
문화정책 제안 쏟아내

차별금지법 제정 포함
대사회적 관련 목소리도

불교계 현안으로는 △법률개정을 통한 10.27법난 피해 단체 '배상'과 기념재단 설립 명시 △현대차 초고층 신사옥 건축계획 재검토 △종교 관련 정책에 대한 종교계 사전 의견 수렴 등이 제시됐다. 또한 평등한 사회 실현 분야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포함한 '화해와 평등위원회(가칭)' 설치가 눈길을 끌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명박 정부 '사회통합위원회', 박근혜 정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잇는 조직으로서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김 차장은 "평상시 종단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각 정당의 대선공약 준비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단도 현재 제안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올해 장엄등은 2014년 4월 16일 불을 밝혔던 미륵사지석탑등으로 앞에는 세월호 추모 리본 등이 설치됐다. 사진=윤호섭 기자

아픔 넘어선 화합의 法燈 밝히다

봉축위원회, 12일 광화문 광장서 봉축 점등식

아픔과 갈등이 상존했던 광화문광장에 치유와 화합의 법등(法燈)이 불을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불기 2561년 광화문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 불교계 종단 지도자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광장을 밝힌 봉축장엄등은 국보 제11호 미륵사지석탑을 원형으로 한 것으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던 탑등이다. 이번에는 세월호가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오고, 대통령 탄핵정국을 보낸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맞춰 모두가 고귀한 존재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대국민 화합이라는 의의가 담겼다.

실제 미륵사지석탑등 앞에는 세월호 노란 리본을 형상화한 등이 설치됐으며, 점등식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기도 했다.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한국 사회의 화합을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생명의 존엄을 쉼 없이 흐르게 하고, 민주의 당연함이 깊게 서린 광장에서, 나의 신심으로 이뤄온 심지로 꺼지지 않는 등불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나를 성찰하여 얻은 청명함으로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을 환하게 밝혀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점등식 참가자들은 점등 이후 각자 연등을 들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탑돌이를 했다. 점등된 미륵사지석탑 봉축 장엄등은 부처님오신날까지 광화문 일대를 환히 밝힐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승가 석 · 박사 인력DB 첫 집계 · 공개

박사 188명 · 석사 224명… 조계종 홈페이지 고지

조계종 소속 스님들 중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 인력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공개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승가전문 교학자 및 특수분야 인물정보'를 공개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조계종 교육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조계종 스님 중 석사 학위자는 224명, 박사 수료자는 193명, 박사 학위자는 188명, 특수분야 70명 등 674명의 △법명 △수계연도 △전공 및 학위논문 △학위 수여 대학 등의 정보가 수록됐다.

이를 통해 분야별 분류도 가능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수료를 포함한 석 · 박사 학위자는 비구 357명, 비구니 317명으로 비구 스님이 조금 더 많았다.

또한 대승불교 전공자가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불교(116명), 인문 · 사회(71명), 사회복지 · 심리학(70명), 불교사 · 사상(51명), 문화 · 예술(46명), 초기불교(33명), 불전언어(27명), 포교전법(15명)의 순으로 전공자가 분포됐다.

대승불교 전공자가 가장 많아
교육 · 포교 · 연구 등 인력 활용
총 674명 학위 · 논문정보 수록

조계종 교육원이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승가전문인력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으로, 사찰과 불교 단체에 진행하는 교육 · 연구 · 포교 등의 활동에 전문 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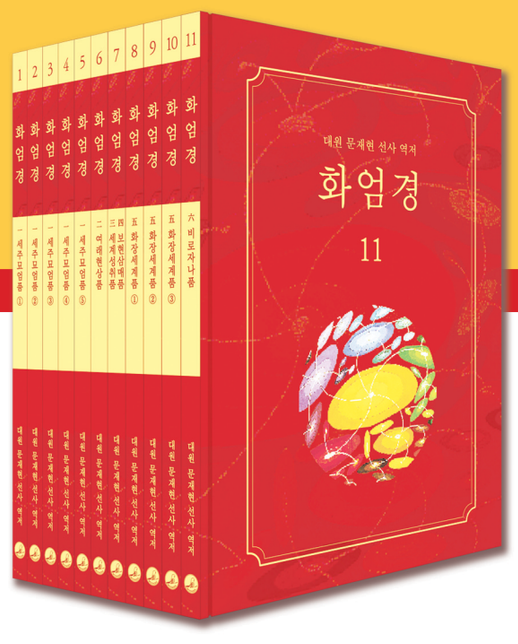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은 "해당 정보는 전문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라면서 "향후 전문승가인력에 대한 기초정보는 매년 지속적인 보완 및 업데이트를 하여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승가전문 교학자 및 특수분야 인물정보'는 조계종 홈페이지의 승가교육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88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11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 정법의 원류 책 내용 일부



불조정맥을 이은 정맥선원의 소개서

정법의 원류

〈정법의 원류〉는 불조정맥을 이은 정맥선원의 소개서이다. 정맥선원은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가 주재하는 도량이다. 〈정법의 원류〉를 통해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정맥을 이은 법과 지도방편을 만날 수 있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